

中, 북한 관광 재개...제재 완화 물꼬 틀까

양국 정상 2차례 회동 영향...다른 분야 확대 움직임도

최근 한반도 긴장 완화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중국이 북한 단체관광을 전면 확대하며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부터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왔으며 적극적으로 두둔하고 있어 관광 분야에서 제재를 풀면서 다른 분야까지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8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국제관광공이 베이징-평양 정기 항공편 운영을 재개한 가운데 중국 3대 온라인 여행사 이트린 취남왕은 최근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대거 내놓았다.

앞서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와 노딜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자국민의 평양행 관광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그해 말 라오닝(遼寧)·지린(吉林)성 소재 일반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일부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허용한 바 있다. 이어 중국 대표 온라인 여행사가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북한 관광 제재가 해제된 셈이다.

중국인의 북한 관광은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수산물·섬유·천연자원 수출 등 외화벌이 수단이 막힌 상태에서 북한에 요긴한 돈줄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아직도 중국 온라인 여행사에서 판매가 금지된 것과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확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중국 대형 온라인 여행사가 베이징에서 직항으로 평양을 단체 관광하는 상품을 팔고 있다는 것은 대북 관광 제재가 사실상 완전히 풀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이 최근 두 차례 북중 정상회담 이후 관광 등 비교적 소프트한 분야부터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취남왕에서 취급하는 북한 단체관광 상품 가운데 평양과 판문점, 38선, 묘향산 등을 거치는 3박 6일 상품이 나와 있다. 평양과 판문점, 조선미술장작사 등을 거치는 5박 8일짜리도 있으며 판문점을 포함해 평안남도를 둘러보는 3박 4일 상품도 준비한다. 가격은 4000위안(한화 68만원)~5000위안(85만원) 정도다.

취남왕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북한 단체관광 상품은 3박 4일과 4박 5일 등이 있으며 16-18명 단위로 관광단을 꾸리고 있다"면서 "특히 단오절(6월 16-18일)에는 북한 관광상품이 인기가 폭증해 모두 팔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단체관광 상품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주일 단위로 관광팀이 출발하는 일정으로 쉼이 없다"면서 "모두 고려항공을 이용하도록 계약돼 있지만 고객이 원하면 중국국제항공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국 최대 관광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씨트립 관계자는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북한 단체관광 상품에 대한 시장 수요를 지켜보고 있으며 조만간 만들 계획이 있다"면서 "현재는 단둥에서 출발하는 하루짜리 북한 단체관광 상품만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중국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37〉 명장 이광필

이광필(李光弼, 708-764)은 거란족 출신으로 당 현종, 숙종때의 명장이다. 광자와의 함께 안녹산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거란왕 이해락의 아들로 4개 절도사를 겸직한 왕충사의 부장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747년 왕충사가 청해성 석보성 공략에 실패해 재상 이임보의 참소를 받게 되었다. "수만 단의 비단을 써서라도 참소를 막아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왕충사가 듣지 않아 국문에 처해졌다. 749년 하서철도부사가 되고 삭방군도부사직에 올랐다.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 낙양을 점령하고 수도 장악 공략에 나서자 광자의 추천으로 하동절도사가 되었다.

안녹산의 부장 사사명과 하북성 상산에서 격돌했다. 1만3천의 병력으로

이 파괴될 때마다 보수하였다. 사사명이 10만의 병력을 모아 태원을 포위하니 공성이 1개월 넘게 계속되었다. 사사명은 물자공급을 끊어 관군의 항복을 유도했다. 그는 거짓으로 항복한 채 하며 적 진영까지 땅굴을 파 혼란시키고 기습작전을 펴 1만명의 적을 죽였다. 안녹산이 죽었다는 소식이 사사명이 부장 채희덕을 남기고 범양으로 돌아갔다. 결사대를 거느리고 공격해 7만명을 죽이고 태원을 사수했다.

안녹산 사후 사사명이 반군의 새 지도자가 되어 759년 사사명과 하양의 결전을 벌이게 된다. 그는 하옥정, 북고회은, 북고창 등이 전선에서 물러나지 않고 적군과 죽기로 싸우도록 독려했다. 고향소리가 하늘과 땅에 울려 퍼졌다. 1천여 명을 참수하고 500명을 포로로 잡았으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1천여 명이였다. 760년 태위 겸 중서령

거란왕의 아들...안녹산의 난 진압

상산으로 진압하자 사사명은 하북성 요양의 포위를 풀고 2만5천의 병력으로 맞붙었다. 양군은 40여일간 격렬한 싸움을 이어갔다. 사사명은 이광필의 식량 보급로를 끊으려 하였다. 이광필은 광자에게 도움을 청해 하북 구문성 남쪽에서 일전을 벌여 크게 승리하게 된다.

이어서 하북성 함양에서 사사명군과 다시 격돌했다. 해자를 깊게 하고 보루를 높이 하여 적군을 기다렸다. 적군이 오면 지키고 물러가면 뒤쫓았고 낮에는 적진앞에서 시위하고 밤에는 적의 군영을 공격하니 적군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함양 인근의 가산에서 적군을 대파해 4만명을 목베고 천여 명을 포로로 생포했다. 사사명은 말에서 떨어져 맨발로 걸어서 하북성 밖으로 달아났다. 이에 하북의 10여 군이 모두 투항했다.

그러나 장안 외곽인 동관을 지키던 가서한이 대패해 장안을 넘겨주게 되었다. 현종이 사천으로 피난가고 숙종이 영무에서 재위에 올랐다. 광자와와 이광필은 삭방반진의 병력을 이끌고 속종의 조정에 합류했다. 숙종은 그를 호부상서·태원유수 겸 동평장사로 삼았다. 그는 하북을 다시 장악한 사사명을 막기 위해 5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태원으로 진군했다. 태원 방어를 위해 해자를 파고 벽돌 수십만 장을 만들어 성

의 직위가 더해졌다. 산서성 심류 상류 요양의 포위를 풀고 2만5천의 병력으로 맞붙었다. 양군은 40여일간 격렬한 싸움을 이어갔다. 사사명은 이광필의 식량 보급로를 끊으려 하였다. 이광필은 광자에게 도움을 청해 하북 구문성 남쪽에서 일전을 벌여 크게 승리하게 된다.

이어서 하북성 함양에서 사사명군과 다시 격돌했다. 해자를 깊게 하고 보루를 높이 하여 적군을 기다렸다. 적군이 오면 지키고 물러가면 뒤쫓았고 낮에는 적진앞에서 시위하고 밤에는 적의 군영을 공격하니 적군이 휴식을 취할 수 없었다. 함양 인근의 가산에서 적군을 대파해 4만명을 목베고 천여 명을 포로로 생포했다. 사사명은 말에서 떨어져 맨발로 걸어서 하북성 밖으로 달아났다. 이에 하북의 10여 군이 모두 투항했다.

그러나 장안 외곽인 동관을 지키던 가서한이 대패해 장안을 넘겨주게 되었다. 현종이 사천으로 피난가고 숙종이 영무에서 재위에 올랐다. 광자와와 이광필은 삭방반진의 병력을 이끌고 속종의 조정에 합류했다. 숙종은 그를 호부상서·태원유수 겸 동평장사로 삼았다. 그는 하북을 다시 장악한 사사명을 막기 위해 5천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태원으로 진군했다. 태원 방어를 위해 해자를 파고 벽돌 수십만 장을 만들어 성

中, 한·중·일 정상회의 제안 미국에 '3국 연대' 과시 의도

중국 정부가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자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8일 보도했다.

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렇게 전하며 이미 지난달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만큼 1년에 2차례 이 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매년 1차례 3국이 번갈아 주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난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로는 중국 측의 소극적인 자세 때문에 2년 반가량 개최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지난달 9일 힘들게 개최가 성사됐는데, 차기 회의 개최국인 중국이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조기 개최를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신은 중국 측이 한국, 일본과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한 문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림수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중·일 3국의 연대를 대외적으로 강조해 무역 문제에서 중국과 같고 있다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회의가 성사될 경우 회의에 맞춰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관련한 중일 경제계 포럼 개최와 아베 총리의 중국 지방 방문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이런 제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으면서도 일본 정부가 아베 총리의 단독 방중에 더 의욕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日 오사카 6.1 지진...3명 사망 18일 오전 7시 58분 일본 오사카부에서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해 이베라키시의 한 사찰 일부가 무너져 있다. 이번 지진으로 오사카시 히가시요도가와구의 한 남성과 다카쓰키시의 9살 초등학생이 무너진 담장에 깔려 숨지는 등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불의 고리' 불안...일본·과테말라 잇단 지진

최근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진과 화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7시 58분 일본 오사카부(大阪府)에서 규모 6.1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은 오사카 북부, 진원의 깊이는 13km다.

이번 지진으로 현재까지 3명이 숨졌고,

NHK는 243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1만 가구에 가스 공급이 끊겼고 17만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열차 등의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일본 기상청은 전했다.

오사카 지진 발생 몇시간 뒤 태평양 건너

과테말라에서도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현지시간으로 17일 오후 8시 32분께 과테말라 남서부 도시 에스쿠인틀라에서 18.7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민 170만명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무려 110명이 숨지고 197명이 실종됐으며, 2800여명은 집을 떠나 험터에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2층주택, 전체 수리했습니다. 사정상 **급매**합니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약 1000만원~~
-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6400만원
- H. 010-6834-7400

